

‘사랑의 향기가 솔솔’

김종해 포천경찰서장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종해 포천경찰서장은 설날을 맞아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신음동 소재 ‘모현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해 경찰서장은 위문금 전달과 함께 수용되어 있는

노인을 일일이 점검하고, 위로의 말과 애로사항 청취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방문한 ‘모현의료센터’는 무의탁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책임자인 박삼화 수녀는 “격무에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것에 마음 든

든함을 느낀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각 부서, 지구대, 파출소 별로 장애인단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원하는 사랑의 램프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 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포천동단체장협의회는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월15일 홀로 외로이 설을 보내게 될 독거노인 70명에게 사랑의 떡·만두·양말을 전달했다.

“어르신들! 따뜻한 설을 맞이하세요!”

불우독거노인 70명 떡·만두 전달

포천동단체장협의회

포천시 포천동단체장협의회(회장 연제순)는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월15일 홀로 외로이 설을 보내게 될 독거노인 70명에게 사랑의 떡·만두·양말을 전달했다.

이날 독거노인 위문은, 평소 단

체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독거노인 28명을 포함한 70명의 독거노인에게 매년 설과 추석이 위문하는 정례적인 위문으로서, 단체회원들이 모두 모여 정성스럽게 만두를 만들었다.

신음동에 사는 박화자 할머니는 “매년 동사무소단체장협의회에서 만두와 떡을 줘서 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천동단체장협의회에서는 단체별로 2-3명씩 독거노인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1회씩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물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비만 죄”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사실 위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순탄과 형통을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되어지질 않는다.

젊은 부부가 유명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들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니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는 그 말을 듣고서 부인을 자세히 진단을 해 보았다. 그러더니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 “아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기는 커녕 부인은 앞으로 두 달을 더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놀랐다. 아기를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때부터 그 부인은 공포심에 떨기 시작했다. 입맛도 잃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상심에 빠져 공포에 떨었다. 그 결과 그는 두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부인의 몸은 비쩍 비쩍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의사는 결결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그럴 테지요. 이제 곧 부인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인이 아기를 못 가지는 것은 부인의 몸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을 빼야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충격 요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겁포를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비만(거만)하면 사람의 선봉이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만 할 뿐이다. 자기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하면 우리의 헛된 교만만 커지게 된다. 우리에게서 이런 교만, 위선의 살, 탐욕의 살을 빼버리자. 그래서 성서는 이런 교훈을 주신다.

잠언서 16장18-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가르치신다.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자연건축과 사회



장덕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필자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산속에 자리잡고 있다. 아직도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즘에는 아침이면, 그리고 봄에서 가을에는 저녁에도 산책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병원이다.

산책을 할 때마다 내 눈을 끄는, 아니 내가 눈길을 주는 길 옆의 폐가다. 그 집은 숲속에서 구해 온 나무를 엄청나게 쌓아올려 벽체를 만들고 그 벽체의 틈새기를 흙으로 메우고 지붕을 스테이트로 덮은 집이다. 지붕은 무너져 조각난 스테이트가 바닥에 떨어지고, 하늘이 울려다 보이는 폐가이다. 그 아마 그 집을 떠난 주인은 가난했고, 집 짓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

다. 집을 보면 그 주인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주인 꽤 오래 전에 식구들과 집을 떠났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왜 집을 떠났을까. 아마 심중팔구 산 속에서 손바닥만한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위의 경우에 집(건축)은 사회 조건(먹고 살기 힘든 환경)에 종속변수가 된다. 즉, 건축은 어느 한 사회의 조건에 따라서 지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산책로 옆의 폐가도 처음에는 그 집주인과 식구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구하고 주변의 흙을 파오고, 먼 소재지의 견재상에서 스테이트 판을 몇 판 사와서 지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고생할 각오를 하고 집을 짓고, 밭에서 먹을 것을 얻어서 살아 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고 밭에서 나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집 주인은 어느 날 그 집을 버리고 도시로 갈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 집 주인에게 커 가는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다. 이 시대에서 교육만이 가난하고 비천

한 계급이 고귀한 계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자연건축이든 인공재료건축이든 건축은 한 사회의 환경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환경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월든〉이라는 이름의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살아 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갖추고 살았다. 비바람을 피하고 겨울에는 나무 난로를 피울 수 있는 오두막집에서 일 년에 몇 포대의 밀과, 몇 벌의 옷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최근에 서구에서 〈자발적 가난〉과 〈느림의 철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루 중에 오전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오후에는 철저히 자기의 시간을 갖으며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존의 사회적 조건들의 영향을 거부한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즉, 교육도 돈을 주고 사는 교육이 아닌, 마을의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집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사회,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온전히 그 사람들의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 새로운 사회에 결맞은 건축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건축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의한 건축이다. 거기에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들과 필연적인 충돌이 따르게 되고, 주체적 선택에 따르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선택에는 항상 그 선택이 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필자연락처 : 011-628-4214

보육상담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Q 안녕하세요? 저소득 신청을 동사무소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정이 사정이 있어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민하면서 상담을 드립니다. 부모는 주소지가 경기도 포천에, 아이(만 3세)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정부시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와 아이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지원 절차는?

부채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운데 아동이 조부모의 집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시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조부모와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 조부모와 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아동 기준이므로 하므로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정부시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시설장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e-보육으로 대체 가능)지원신청을 합니다.

2. 시설소제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동 또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육시설 이용유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에게 계좌 입금을 통하여 지급한다.



인경준 중앙특수어린이집 원장 (031-534-0277)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업체



좋은 생각이 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벽지, 장판, 페인트, 조명, 버티칼, 샷시, 마루공사, 화장실공사, 베란다 확장공사 등 가격에 자신있기에 무료 출장견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 호 : 대북 인테리어 하우스
- 대 표 : 유 병 호
- 주 소 : 포천시 선단동 82-14(☎031-542-8818)
- 홈 페이지 : www.daebokart.com
- 장안영업소 : 031-871-2002
- 경기상재 : 031-829-8901
- 방학영업소 : 02-954-1481
- 구리상재(주) : 031-529-5072~3

